

한국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계주 '금빛 질주'

홍경환·임용진 등 새 멤버들 시즌 첫 대회부터 좋은 호흡 최민정 여자 1000m 은메달 심석희는 500m에서 동메달 1차대회 금 3·은 6·동 5 획득



30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대표팀(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쪽은 은메달을 딴 카자흐스탄 대표팀(왼쪽)과 동메달을 딴 캐나다 대표팀.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준서(한국체대), 홍경환, 임용진(이상 고양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지난 3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마지막 날 남자 5000m 결승전에서 7분01초85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 등이 이번 시즌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는 등 구성원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시즌 첫 대회부터 좋은 호흡을 선보였다.

초반 선두에 자리 잡은 한국은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끌어갔다.

6바퀴를 남기고 2위로 달리던 캐나다가 추위를 느꼈으나 인코스를 파고들다 미끄러졌고, 우리나라는 끝까지 1위를 지켰다.

카자흐스탄이 2위(7분07초972), 캐나다가 3위(7분 12초997)에 올랐다.

한국 여자 계주 대표팀은 전날 준결승에서 실격 판정을 받아 이날 결승전에 나서지 못했다.

개인전 종목에선 한국 선수들이 고루 선전했다.

전날 주 종목인 1500m에서 4위에 그쳐 아쉬움을 삼킨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여

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 2위(1분31초815)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뒤이어 결승선을 통과한 김길리(서천고)는 1분 31초84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고, 김건희(단국대)는 4위(1분31초881)에 랭크됐다.

금메달은 최민정의 '라이벌' 쉬자너 스웰링(1분 31초717)에게 돌아갔다. 스웰링은 이번 대회 1500m와 3000m 계주까지 3관왕을 달성했다.

여자 500m 결승에서는 심석희(서울시청)가 43초070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남자 500m에선 이준서가 40초434의 기록으로 은메달, 남자 1000m 2차 레이스에선 홍경환이 은메달(1분23초598), 김태성(단국대)은 동메달(1분24초561)을 획득했다.

한국은 이번 시즌 첫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총 금메달 3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휩쓸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올 시즌 월드컵 대회는 총 6차례 열리며, 첫 대회를 마친 대표팀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진행되는 2차 월드컵(11월 4~6일), ISU 사대륙 쇼

트랙선수권대회(11월 10~12일)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한편, 중국 귀화 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린샤오원(한국명 임효준)은 입상에 실패했다.

전날 혼성 계주 2000m 준결승 1조 레이스 도중 실격 처분을 받은 그는 남자 1500m 준결승 경기를 기권했다.

중국 신화 통신 등은 허리 부상이 기권 이유라고 설명한 가운데 린샤오원은 남자 1000m 2차 레이스 준결승에도 나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F1 대세' 페르스타펜 14번째 우승...시즌 최다승 신기록



막스 페르스타펜(25-레드불-네덜란드·사진)이 역대 가장 압도적인 포뮬러원(F1)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페르스타펜은 31일(한국시간) 멕시코의 에르모노스 로드리게스 서킷(4.304km·71랩)에서 열린 2022 F1 월드챔피언십 20라운드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 1위(1시간38분36초729)로 결승선을 통과, 2위를 차지한 '라이벌' 루이스 해밀턴(37-메르세데스-영국)을 15초186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올 시즌 14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일군 페르스타펜은 F1 한 시즌 최다승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당시 페라리-독일)와 '4회 챔피언' 제바스티안 페텔(당시 레드불-독일)이 각각 2004년과 2013년 13차례 우승해 이 부문 최다 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페르스타펜이 올 시즌 19라운드 미국 그랑프리에서 두 레전드를 넘어섰다.

페르스타펜은 아직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이다.

해밀턴과 메르세데스가 부진해 지금까지는 F1에서 페르스타펜을 막아설 드라이버가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테니스 대세' 오제알리아심 ATP 투어 3주 연속 우승



펠릭스 오제알리아심(9위-캐나다·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3주 연속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오제알리아심은 31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ATP 투어 스위스 인도어스 바젤(총상금 213만5350 유로)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홀게르 루네(25위-덴마크)를 2-0(6-3 7-5)으로 제압했다.

최근 2주 사이에 피렌체오픈과 유러피언 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한 오제알리아심은 3주 연속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39만9320 유로(약 5억6000만원)다.

2000년생 오제알리아심은 세계 랭킹에서도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ATP 투어 에르스테방크 오픈(총상금 234만9180 유로)에서는 다닐 메드베데프(4위-러시아)가 우승했다.

메드베데프는 결승에서 테니스 샤프발로프(19위-캐나다)를 2-1(4-6 6-3 6-2)로 물리쳤다. 우승 상금은 43만9305 유로, 한국 돈으로 6억2천 만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지방체육회 예산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해주오"

광주·전남체육회, 순회간담회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건의

"학교 체육활성화와 체육회 예산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주시,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31일 2022년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이같은 내용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이 자리는 지방체육 현안을 논의하고,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시체육회, 오후에는 도체육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시체육회는 초등학교 선수 발굴을 위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중점 사업 추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체육회장 선거 시 다양한 선거인 구성, 체육고등학교 예산지원 확대 및 실기교사 배치, 지방체육회 법인설립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광야 시체육회 회장직무대행은 "오는 12월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체육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와 시·군 체육회장들은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부의 가이드라인 배포, 시·군체육회 직원 처우에 대한 지침 마련과 제도 정비, 체육시설 사용·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학교체육활성화 방안, 체육회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최기중 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군체육회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남체



육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체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시,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12월

에 실시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성숙하게 치르자고 결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공적패를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장흥에 대한민국의체육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여제' 김가영 통산 4번째 LPBA 우승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프로당구 LBPA에서 올 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가영은 지난 30일 밤 경기도 고양시 빛바람 송센터에서 열린 휴온스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에서 임정숙(코라운해태)을 세트 점수 4-1(11-6 10-11 11-3 11-1 11-7)로 제압했다.

이로써 김가영은 LPBA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르며 통산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이매리(TS 샵

푸)와 임정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승 상금 2000만원과 2만 점의 랭킹포인트를 얻은 김가영은 누적 상금랭킹 1위(1억7745만원)도 굳게 지켰다.

대회를 경기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월별랭킹'은 64강에서 에버리지 1.889를 찍은 스톤 피아비(블루윈리조트)에게 돌아갔다.

김가영은 결승에서 과감하게 정확한 샷을 선보

이며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세트 점수 1-1로 맞선 3세트에서 김가영은 단 5이닝 만에 11점을 채웠고, 4세트는 11-1로 압도했다.

기세를 탄 김가영은 5세트 6이닝에서 2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뒤 8이닝에 남은 2점을 채워 11-7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우승 트로피를 품은 김가영은 "대회 초반 고전했지만, 무사히 우승으로 대회를 마쳐 기쁘다. 앞으로 승패를 떠나 '믿고 볼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으며,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가영.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리멤버
- 2관 블랙 아담
- 3관 자백, 극장판 썬더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막일학교, 공조2: 인터내셔널
- 4관 자백
- 5관 리멤버,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 6관 자백
- 9관 인생은 아름다워, 스마일
- 7관 씨네케틀: 블랙 아담, 오픈: 천사의 탄생, 스마일, 정직한 후보2
- 8관 씨네케틀: 리멤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뷰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⑧ **몰토 콰르텟**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